다름

2013210061 채윤병

여행의 형태는 다양하다. 친구들끼리의 우정여행, 가족끼리 함께 즐기는 가족여행, 그리고 연인 사이에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혼자 떠나는 여행까지.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어떤 이유에서 떠나든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느끼고 온다. ‘우리 동네와 이 곳은 뭐가 다르다’에 관한 것이다.

어렸을 때 유럽에 간 적이 있었다. 이 박물관 저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배에 신호가 와서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행히 화장실이 있었다. 그런데 입구가 지하철처럼 막혀 있어서 어른들께 여쭤봤더니 돈을 넣고 입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린 아이 입장에서 돈 주고 볼일을 본다는 것이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은 유럽의 장사꾼들에 비해 상당히 정이 많은 곳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여행 내내 화장실은 숙소에 있을 때 미리미리 해결하곤 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여행을 갈 때 우리는 ‘다름’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다른 것은 언어, 예술, 자연경관뿐만이 아니다. 생활양식은 아마 이 곳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가 가장 살결에 와 닿는 차이일 것이다. 후지와라 신야도 인도의 갠지스강을 카메라와 함께 방랑하며 사람들의 생활에 집중했다. 장례터를 지켜보며 그가 느낀 것을 담담하게 적는 것, 그것이 내가 소망하는 여행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여행을 가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것에 슬퍼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가며 여행의 의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나와 좋아하는 것, 슬픔을 느끼는 것이 다르지 않다면 여행의 의미는 없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있고 이해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일본을 여행하며 일본 학생을 만나보고 싶다. 일본과 한국은 공유하는 역사도 많고, 비슷한 사회문제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 속에서도 분명히 느끼는 감정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상징하는 유적지를 그 학생과 함께 돌아다니며 ‘이들은 이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슬퍼하고 또 좋아했구나’를 이해하고 싶다.

후지와라 신야는 갠지스강의 깊이를 장레터를 보기 전엔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여행이란 결국 다름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여행을 통해 안대로 가린 눈을 천천히 뜨면서 우린 알지 못했던 다름에 대해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